

제2장

2020 군정 성과 및 2021 군정 추진계획

- 60 제1절 2020 군정 성과
1. 총괄 60 / 2. 역점시책별 주요 성과 61
- 67 제2절 2021 군정 추진계획
1. 추진방향 67 / 2.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68

제 1 절

2020 군정성과

1. 총괄

민선 7기 출범 후 ‘사람이 희망인 울주’를 비전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울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울주군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 편한 결혼·임신·출산·보육환경을 조성하고, 6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으며, 인구 유입과 경제성장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지역특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군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23만 군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국 최고의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해 군민의 건강, 일상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유례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선제적 추진으로 1인당 10만 원의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올해 군정을 가장 빛낸 최고의 사업으로 「울주군정 BEST 7」 1위에 선정되었으며, 21만 8천 9백 명에게 지급된 218억 9천만 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의 소비 상승효과를 내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한몫하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870억 원으로 증액하고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2,716명에게 울산 최초로 532백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였다.

울주군에서 방사능방재 재난 대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방호복을 코로나19 대응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민과 즉시 협의 후 일선 현장에 긴급 지원하여 주민 생명 보호, 방호구 수급 안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울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재난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방역 대책, 자원 동원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였다.

2. 역점시책별 주요 성과

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교육도시

인구 30만 시대,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4년 동안 연 최대 4백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원자 중 62%가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 인구 유입 효과가 증명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청년들이 울주군에서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비용 및 작은 결혼식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개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으로 결혼부터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과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 교복 지원, 인터넷강의료 지원,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을 통한 포용적 교육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부족한 의료기관, 넓은 면적, 교통 불편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검진버스를 운영하면서 올해 신규로 추가된 이상지질혈증 및 퇴행성관절염을 포함한 무료 건강검진, 한의과 진료, 검진유소견자 의료기관 연계 치료 안내 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제고에 앞장서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치매에서 안심하는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단 운영으로 2,86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1,476명에게 제공하는 등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 기반의 토대를 다졌다.

그 밖에도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신축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중부 종합복지타운 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틈새 없는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농어촌

서생면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 농업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디지털 농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차산업 관광 클러스터 4개소 지원, 스마트팜 보급 확산 지원 7개소, 병충해 방제 농업용 드론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섰다.

두서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속적 추진 및 스마트(ICT융복합) 축사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축사 스마트 악취관리 대응 시스템 설치 지원 등 미래지향적 축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거점소독세척시설 자동화 시스템 상시 운영과 이동 통제초소 운영으로 재난성 가축전염병(구제역.AI, ASF) 청정지역으로 올 한해 지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으며 연중 안정적인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축산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2020년 4월부터 울주군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운영을 시작하였고, 지난 8월에는 울주군·중구·남구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으로 우리군은 중구와 남구지 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울산 전 지역으로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범서·삼남·청량·온양·온산·울산원예농협 6개소에 로컬푸드 생산·판매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이바지하였다.

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력도시

인구 유입과 경제성장 재도약을 위해 균형발전 도시변화를 선도하는 효율적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두동·두서에 산림·축산 경영 특화단지인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급격한 인구 유출지역인 두동·두서 지역에 교육, 문화, 관광, 편의시설을 갖춘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이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는 청량읍 울리·울현지구는 군청 주변 행정복합타운 및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울산형 농촌 융복합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시, 울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과 울산도시공사, (주)한화도시개발이 합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을 보강한 스마트 자족 신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구역 면적 153만㎡ 가운데 약 28%인 42만㎡를 연구개발(R&D), 미래차, 생명공학(BT), 에너지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주거시설 1만 2,000세대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범서 굴화리, 서사·척과리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온양 마을 정비형 행복주택 건설사업,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군 전역에 걸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 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해 울주의 항구적인 발전을 이어갈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준공을 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분양대금 완납 전 토지 사용 허가 등 각종 분양 지원정책 강화 등을 통해 16개사 분양률 24%를 달성하였으며, 국책사업인 원전해체연구소와 연계하여 동남권 에너지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해외무역관 지사화 연계사업, 수출보증보험료 가입사업, 수출 도우미 활용사업 등 울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융자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고,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중소기업체(제조업) 54개 사에 9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밖에도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450명에 대한 맞춤형 산업 인재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 공공일자리 사업 등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연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0월에는 동성벽 토지 5필지를 매입하는 등 연양읍성 복원의 가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암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천전리각석 디자인 원천소스 제작과 울주군 독립운동사 조사 연구 및 2,916명인 참여한 울주군 역사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와 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데 앞장섰다.

울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울주군 해양관광 및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6월 완료하여 역점 관광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사업에 21,867명이 도전하였고, 10,653명이 완등하는 등 코로나19 비대면 추세에 발맞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울주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울주 대표 축제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비대면 축제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제5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온라인 상영과 자동차 극장 등 비대면으로 진행해 총 17,744회의 관람 횟수를 기록하였고, 올해 처음 시도한 자동차 극장이 93.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도를 얻어내며 안전 최우선의 비대면 전환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웅기축제에 온라인 38만 5,000명, 오프라인 2만 9,000명이 즐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1월 출범한 울주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컨트롤 타워로써 생활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중부종합복지타운 내 울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소통으로 혁신하는 군민참여도시

군민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군수가 직접 민원 해결사로 나선 ‘열린 군수실’은 올해도 지속 운영해 72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그중 범서 굴화리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한 민원에 적극적 대응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지정을 통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였다.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지역 둘레길 등 열린 공간에서 주민과의 대화, 상생·소통의 제안제도 등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내실화하여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 23건, 33억 원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직접 반영되는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했다.

또한, ‘군민권익위원회’ 운영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위원회’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약 평가를 하였고, 청년정책협의체 및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등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공식 유튜브 채널 ‘울쭈tv’의 활성화로 군정 소식을 군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군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였다.

바. 내 삶을 지켜주는 녹색 안전도시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 시스템 구축, 통합 비상 발령시스템 구축, 재난 홍보 전광판 설치, 자동 우량경보 교체,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추진 등으로 재난관리에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추진 우수기관 및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범죄취약지역 32개소에 방범용 CCTV 83대를 설치 완료하여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고,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빈집정비 지원 사업(3개소), 향산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범죄취약지역 스마트 보안등 설치공사(50개소) 등 군민의 편안한 정주 도시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11월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 채택됨으로써 창업플랫폼 조성, 상가 거리 개선 등으로 정주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7월부터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가지 보험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에게 더 넓은 안전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운영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 울주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다.

지난 4월 구축한 악취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악취 모니터링 및 자동 시료 채취 장치 운영으로 악취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주택, 창고 등 608동을 철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서생 군도 33호선(발리~진하) 선형 개량공사, 온양 운화 467-1번지 일원(소2-106호) 도로개설공

사를 비롯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온산 덕신 노상공영주차장을 준공했고, 울주사랑 택시 및 마실버스 운영, 버스승강장 에어컨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지난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 정비 사업에도 앞장섰다.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신호 및 보행등주 도색 공사를 비하여, 노란 신호등, 옐로 카펫, 보행자 자동 인식시스템 등을 설치해 어린이 및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다.

제 2 절

2021 군정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민선 7기 군정 비전인 「사람이 희망인 울주」와 「인구 30만 울주 건설」을 위해 그려온 밑그림들이 더욱 풍성하고 탄탄해질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 사업의 전문성 및 추진력을 더욱 강화하고 추진 사업을 일관된 자세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아 2021년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울주’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대 역점시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역점시책

- ①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든든한 복지·교육도시
- ② 지속가능한 미래성장·균형발전도시
- ③ 협력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경제활력도시
- ④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 ⑤ 군민행복 맞춤형 안전환경도시
- ⑥ 소통하고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혁신 도시

2.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첫째,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든든한 복지·교육도시

그동안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을 지속하고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노후 국공립어린이집(3개소)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 공기질 개선공사 통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방과 후 돌봄 센터 설치, 셋째 이상 자녀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건립하고,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오락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며, 무상급식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인터넷 학습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독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관내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디지털 북 체험, 천상도서관 24시간 무인 대출 반납과 예약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 읽는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 친화 독서문화 공간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지원, 천상도서관 자료실 확장과 강의동을 신축하여 행복한 미래, 꿈과 희망이 있는 지식복지 울주를 실현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소득 창출과 노인 빈곤 예방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경로당 신축과 시설개선공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삼남 장애인 근로 사업장 이전 건립,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울주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성장·균형발전도시

2040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개발(산업단지)사업의 지속적 관리 강화 등 전략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울주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두동 이전지구·두서 인보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울주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2개소)하며, 남창 마을 정비형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맞춤형 지역특화 개발 컨설팅 등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변화를 선도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구현할 것이다.

공원용지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학교길 교통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요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개설과 확충사업 등으로 도로·교통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구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셋째, 협력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경제활력도시

시대를 앞서가는 디지털 뉴딜 지역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비대면 수출시장 공략을 위한 디지털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과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지원 등을 추진하여 협력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경제활력 도시를 만들 것이다.

맞춤형 창업·취업 및 인재 육성 지원의 목적으로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일자리 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연계하여 직업 만족도 제고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산업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력 도시를 만들 것이다.

6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으로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과 농촌 활력을 도모, 시민과 함께하는 도·농 상생 복합센터를 건립하며, 지역농산물 반가공산업 육성사업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가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토록 할 것이다.

농촌특화 소득증대사업과 지역 대표 과수 육성을 위한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축산단지 ICT 시범단지 조성으로 환경오염 해소와 가축 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ICT 융복합 기술로 생산성 향상 등 첨단 축산을 구현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어항을 통합 정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

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며 어촌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어촌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치파머를 꿈꾸는 2030 청년 농부의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년창업 및 퇴직 세대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도시민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울주문화재단 운영으로 문화기관의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을 높여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최, 간절곶해맞이행사, 울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으로 스마트 문화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언양읍성 복원 정비 사업 및 역사문화공원 추진, 반구대암각화 등 지역 대표 문화유산을 보존과 관광 자원화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로의 입지를 굳힐 것이다.

울주씨름단을 창단·운영하여 울주군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 개선과 정비공사, 해양스포츠대회 개최 및 체험교실 운영, 구영운동장 조성 등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 울주를 만들 것이다.

간절곶 체류형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소망타워 등을 설치하고 서생 해양 관광단지 지정 추진과 진하 낭만 해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옹기마을 놀이터 조성사업, 울주 관광택시 운영, 영남알프스 완등자 인증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외고산 옹기마을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 지속적인 운영 등으로 일상이 여행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울주를 구현할 것이다.

다섯째, 군민행복 맞춤형 안전환경도시

시설물의 안전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언양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 울주군민체육관 등 4개소 노후 변압기를 친환경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법용 CCTV 설치와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빈집정비 지원사업, 취약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주택·마을 환경 등의 생활 여건을 개조하는 사업 등으로 주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악취민감시기에 악취특별순찰반을 운영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처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대기질을 향상시켜 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권 도시공원(구영들공원, 천상공원)을 조성하고, 두서 활천·양지마을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 KTX 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 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울주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재난·재해 및 범죄 발생에 대한 통합 대응 안전 체계를 확보하고 산불 대응센터를 구축하며 지진 발생 시 수초 이내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유도가 가능한 울주군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연양 반천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와 지방하천을 정비(대북천·곡천천·중리천·효암천)하고 자연·사회재난 유형별 재난 대응 훈련하며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감시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방사능방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으로 재난·재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소통하고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혁신 도시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구현과 소통과 참여로 열린 공감 행정 추진을 위해 열린 군수실과 읍·면별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울주군민 100인 원탁토론회, 상상·소통 창의적 제안 제도 운영, 울주군민권익위원회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군정을 운영할 것이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성과평가관리의 전산화로 스마트군정을 실현하며,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양방향 문자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 대기시간 단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선호 환경에 대응하여 납세자를 위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행정의 디지털화로 스마트군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구현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재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 향상과 자치재정을 실현하고, 혁신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군민감사관제도 운영,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 행정지원 위원회 운영 등으로 군민 참여를 통한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 「울쭈TV」 활성화와 SNS를 통한 군정 홍보(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실시간 소통을 통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해 나갈 것이다.